

<동정자료>

손병석 차관, “스마트 인프라 기술 활용 사업 개발 확대해야”

UAE 진출 기업 간담회...인력양성 지원 약속·근로시간 단축 대응 현황 점검

-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월 23일(월) 아랍에미리트(UAE)에서 현지 진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외건설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.
-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“지난 3월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 시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탈석유화 및 산업다각화를 목표로 다양한 신산업에 대한 협력 의지를 보였다.”라고 강조하며, “전통적인 플랜트 중심의 재정발주 사업 외에 스마트시티, 첨단교통 인프라(ITS) 등 스마트 인프라 기술을 활용한 사업 개발을 활발히 해 줄 것”을 요청했다.
-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탄력근로시간제, 교대 근무 활용, 집중근무 독려 등 업계의 대응 현황도 점검했다.
 - 손 차관은 “해외건설 현장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 현장훈련(OJT), 마이스터고 등 해외건설 인력양성 제도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첨단 인프라 투자개발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- 정부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(KIND), 글로벌인프라펀드(GIF) 등 투자개발형 사업 지원 제도를 통해 해외건설 텃밭인 중동지역에서 첨단 인프라 및 투자개발형 사업 등 기업들의 새로운 사업 수주·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.

2018. 7. 24.

국토교통부 대변인